

# 중국 문화정책 강화, '한류' 기회는 어디에?

글 김인숙 탭스토리 대표(tapstory@naver.com)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일부 연해 지역을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였다. 개혁개방으로부터 17년이 지난 1995년,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과 투자 장려 업종을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수정 보완을 거쳐 해당 업종을 조정해 오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는 '대장금'이다. 이전에도 한국 드라마가 중국 텔레비전 방송 전파를 탄 경우가 있었지만 대장금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대장금이 인기를 끌었던 2005년 당시 외국 드라마는 황금시간대에 방송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4년,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또 한번 중국을 들쭉이게 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인터넷에서 먼저 인기를 얻은 다음 텔레비전 방송 전파를 탔다. 파격이었다. 당시 일반적인 패턴과는 정 반대였기 때문이다.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소위 말하는 '한류 드라마'는 중국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한류'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프리미엄이 생겼다.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류 동영상 콘텐츠는 자

취를 감쳤다. 사드(THAAD)가 촉발한 '한한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피해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를 수입한 중국 기업들에도 고스란히 돌아갔다.

여기서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사드가 아니었더라면?'

### 만약 사드가 아니었더라면?

사드 이전에도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이 특별 구역을 지정해 점진적인 개방을 하고, 1995년부터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만들어 투자 제한 업종을 관리한 것과 같은 이치다.

중국 문화 콘텐츠 산업이 그간의 양적 성장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제한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비단 외국 콘텐츠에 대한 제한 뿐 아니다. 중국내 문화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도 난해한 제한령들이 속속 등장했다. 특히 2017년에 관련 규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2017년 6월 1일에는 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창작 보급 관리 강화 통지(关于进一步加强网络视听节目创作播出管理的通知)



중국에서 가장 큰 돌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대장금' [출처: 유튜브]



2014년 중국을 강타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출처: 공식홈페이지]

를 발표,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도 라디오 텔레비전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며,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없는 콘텐츠는 인터넷(모바일 인터넷 포함)에서도 배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시나웨이보', 'ACFUN', '봉황망' 등 웹사이트의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웹사이트가 '정보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배급 허가증'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규정에 맞지 않는 정치 콘텐츠와 부정적 언론을 알리는 사회 평론 콘텐츠를 대량 배급했다는 이유다.

6월 30일에는 중국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협회가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 내용 심의 통칙(网络视听节目内容审核通则)'을 발표, 선 심의 후 배급과 심의 제도 실시를 명확히 했다. 심의 요소는 정치적 요소, 가치관, 심미적 요소가 어떻게 유도되는 지와 줄거리, 화면, 대사, 노래, 효과음, 인물, 자막 등을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7월 20일에는 '스타 제한령'을 발표, 일반 대중이 게스트로 출연하도록 장려하고, 일반인 출연자가 스타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등 일반인의 출연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8월에는 '인터넷 시청각 콘텐츠의 의약품 광고 관리 강화 통지'를 발표, 각 성별로 관내 전담 조직을 구성해 해당 웹사이트의 의약품 광고와 시청각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의약품 광고와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12월에는 신문출판광전총국, 선전부, 교육부, 문화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인터넷상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선율'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주선율(主旋律)이란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당의 역사를 서술하는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문화경향을 말한다. '주선율 드라마'와 같이 교착화된 수식어로 자주 쓰인다).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6조 원이다. 올해는 21조 원, 2020년에는 34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중국은 예측하고 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아이치이와 텐센트 비디오는 각각 유료회원 수가 6010만 명과 6258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유료 회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완성작 콘텐츠를 수입하면 중국 사업자 입장에서도 훨씬 쉽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류 콘텐츠 배급을 철저히 통제했다. 2017년에 가장 심각했다. 최근 들어 하나 둘 한류 콘



2017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중국 웹드라마 '백야추홍(白夜追凶)'

텐츠가 중국에 다시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미디어 관련 국가기구의 변화**

올해 3월,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이하 신문광전총국)을 없애고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발표됐다(신문(新闻)은 뉴스, 광파(广播)는 라디오, 전영(电影)은 영화, 전시(电视)는 텔레비전이다. 기관 명칭이므로 번역하지 않고 한자 독음을 그대로 옮겼다).

신문광전총국은 국가신문출판총서(国家新闻出版总署)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이 2013년 통합 출범했던 기관이다. 뉴스,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저작권 등을 관리했다.

역대 변천사를 살펴보면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조직이 통합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과거 통합했던 기구를 다시 나누는 모양새다. 기관 명칭에서 뉴스, 출판, 영화가 빠져 나와 중공중앙선전부(中宣部, 이하 중선부)로 귀속됐다. 저작권 부처인 국가판권국도 중선부로 귀속됐다.

2017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중국 웹드라마 중 '백야추홍(白夜追凶)'이라는 작품이 있다.

제작자 원웨이메이(袁玉梅)는 연출가 왕웨이(王伟)에게 "과거 중국의 수사극처럼 촬영하면 엄청나게 촌스러운 드라마가 나온다. 한국 영화의 질감과 미드의 템포를

보여달라"는 주문을 했다.

왕웨이는 1985년 생 젊은 연출가다. 그는 제작자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의 눈길도 사로잡았다. 중국도 이제 스스로 한국 영화의 질감과 미드의 템포를 보여줄 수 있는 제작 실력을 갖춰가고 있다.

백야추홍 제작이 한창 진행되던 2016년 9월, 제작진들의 귀에 황당한 소식이 들렸다. 이미 인터넷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백야추홍과 유사한 장르의 웹드라마가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로 서비스 중지됐다는 소식이다. 제작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제작한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도 배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였다. 다행히 관련 기관에 사전 평가를 의뢰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부 장면을 수정한 다음 검열을 통과하고 배급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 콘텐츠 산업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온라인 콘텐츠 분야는 한국 및 일본과 비슷한 규모로 2020년에는 한국, 일본을 넘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중국은 예측하고 있다. 중국이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창의력' 발휘할 콘텐츠 인력에 주목**

통합 추세로 가던 국무원 조직 개편이 다시 전문화로 방향 전환을 했다.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

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 규제 고삐를 더욱 더 강하게 쥘 가능성이 높다. 강화되는 규제와 검열, 그리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사명, 이 둘 사이에는 분명 모순이 존재한다. 중국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뤄왔다. 콘텐츠 산업도 동일한 전략이다. 그들이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한국 콘텐츠 기업들이 깊숙하게 관여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시나리오 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포토그래퍼, 무술 감독, 음악 감독, 미술 감독 등 한국 문화 산업 전문 인력들이 더 많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이

창의성을 인정받아 중국에 안착하면 중국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이 곧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백야추홍 시나리오 작가 즈원(指纹)은 이렇게 말했다. "창작자는 정부 내용 검열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환경 조건으로 보면 된다. 죽새가 되긴 하지만 창작자가 극복해야 할 몫이다. 잘 못 쓰면 능력이 없는 거다. 내용 검열을 탓하지 말라."

한국은 즈원의 말을 되새기며 진정한 승부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중국이라는 무대에 다시 올라야 한다. ❶

**국가광파전시총국 역대 변천사**

- 1949년 6월 | 중국광파사업관리처(中国广播事业管理处) 설립,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관리
- 1949년 11월 | 광파사업국(广播事业局) 출범, 정부원신문총서(政务院新闻总署) 관리
- 1952년 | 중앙광파사업국(中央广播事业局) 출범, 정부원문교위원회(政务院文教委员会) 관리
- 1954~1966년 | 광파사업국(广播事业局) 출범, 기술·행정업무 국무원 지휘, 선전업무 중선부(中宣部) 지휘
- 1967~1981년 | 중앙광파사업국(中央广播事业局) 출범, 1967~1976년 | 중앙직속 기관으로 1977~1981년 | 기술·행정업무 국무원 지휘, 선전업무 중선부(中宣部) 지휘
- 1982년 5월~1985년 | 광파전시부(广播电视部) 출범, 국무원 구성 기관
- 1986년 1월~1997년 | 광파전시부(广播电视部)와 문화부전영국(文化部电影局)을 광파전영전시부(广播电影电视部)로 통합, 국무원 구성 기관
- 1998년 3월 | 광파전영전시부(广播电影电视部)를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으로 개편
- 2013년 |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을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으로 통합
- 2018년 |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을 없애고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설립

**참고자료**

- ❶ 2018양회, '인터넷 동영상 관리 감독'의 4대 쟁점과 4대 건의, 종스DVBCN, 2018.3.5.
- ❷ '백야추홍'과 '무정지죄'의 인기 비결은?, 송위의 잡지읽기, 2017.10.10.
- ❸ 긴급! 광전총국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배급 질서 강화 발표, 중징문화산업, 2018.3.22.
- ❹ 정책해설, 국가광파전시총국 출범, 인터넷 관리 감독 엄격해질 것, 미디어1호, 2018.3.13.
- ❺ '양회' 단독, 국가광파전시총국 설립, 69년 라디오 텔레비전 발전 변천사, 광전독자, 2018.3.14.
- ❻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없애고 '국가광파전시총국' 설립, '뉴스', '출판', '영화'는 누가?, 인터넷영화, 2018.3.14.
- ❼ 심층 해석, 문화영역 기구 개혁, 문화산업평론, 2018.3.13.
- ❽ 중국 라디오 텔레비전 불이 왔다?, 미디어서클, 2018.3.15.
- ❾ 中, 新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관련 시사점, 법무법인(유)원, 2015.4.